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자 '對 불교계 현안'은? 종교편향 등 해결과제 산적

제17대 대통령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12월 19일 열린 대통령 선거 결과 이 당선자는 전체 투표율은 62.9% 중 47%라는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넘어야 할 산은 점점산중이다. 특히 불교계와의 '관계회복' 혹은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지적이 높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 불현' 등의 발언으로 종교계로부터 '종교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경부운하' 역시 불교 및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당면과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 자신은 "본인의 종교문제에 대해 불교계에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종교편향 발언에 대해서는 수심 차려 해명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종교편향적인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당선자의 행보에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부인 김윤옥 여사가 '연화심'이라는 법령을 받은 것을 문제 삼는 개신교 모임에서 이 당선자는 "절에서 하는 법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스님이 부인에게



얼굴이 연꽃 같다고 말한 것이 와전인 것"이라고 해명해 불교계의 반목을 샀다. 또한 불교계가 마련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도 행사 당일 오전에 불참을 선언해 토론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한 '종교간 화해와 상생을 위한 서약서'에도 그는 회신 불가 입장을 밝혔다.

말로는 '종교화합' '이웃 종교 배려'를 외치면서도 이 당선자의 이 같은 행보가 계속되는 것은 여전히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부족'과 '인식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경부운하' 역시 넘어야 할 큰 산이

다. 경부운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로부터 '환경 및 불교문화재 파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회장 지준)과 금강회(회장 보선)는 11월 6일 '경부운하 건설 공약'이 불교문화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부대운하구간 중 조령수로터널은 백두대간의 월악산국립공원과 문경도립공원 일대를 관통하는데, 이 지역에는 보물급 불교문화재 68점을 비롯해 169점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존재한다"며 "터널 공사에 따른 지하수 하강, 지반 변위 등 산지 파괴는 물론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유적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0월 23일 열린 '경부운하 공약 철회 촉구 사회인사 2500인 선언식'에서 문화연대 황병우 문화유산위원장은 "경부운하 건설 계획대로라면 여주 신복사는 그대로 물바다가 되고 수많은 국가지정문화재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수차례 불교

계를 찾아 종교편향 근절, 불교관련 각종 법령 개정,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불교 문화·문화재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지켜나갈지 불교계는 현명한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인식이 높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2월 20일 제17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민화합과 경제회복,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는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지관 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당선자로서 무엇보다 흠어진 민심을 하나로 결집하고 민족과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처님이 지도자의 열 가지 덕목 중 하나로 제시한 '불상위(不相違)'를 예로 들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어떠한 일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밝혔다. <관련기사2·27면>

여수형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성탄절을 1주일 앞둔 12월 18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박재원 기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 지관 스님 메시지 발표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예수님 오신날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지관 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불자들을 대표하여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사랑과 나눔을 통한 화합과 평화이며, 화합과 평화는 진실한 사랑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수상 보시를 통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수님 오신날을 맞아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나눔을 통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며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대상이 되고, 아픔의 분단을 뛰어넘는 민족통일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올해로 8년째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해오고 있다.

여수형 기자

책 주문은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여시아문'
온라인 불서전문점 **온라인 여시아문(www.yosiamun.com)** 과 전화 주문 (02-737-0695) 관리가 전문화 되었습니다. 책방 온라인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 불서 전문 출판 운주사와 협약을 맺어 주문과 배송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나눔의 가르침 실천하고 싶어"

신장기증하는 부석사 일휴 스님

"내가 가진 것을 나눠 한 생명이 새 삶을 얻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묵묵히 소임 살던 한 스님의 장기기증 사연이 알려져 매서운 겨울 추위에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12월 20일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생면 부지의 한 젊은이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 준 이는 일휴 스님. 현재 서산 부석사에서 부전 소임을 맡고 있다.



"입적하신 법장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과 주경 스님(부석사 주지)의 생령종중과 나눔의 가르침을 실천했을 뿐"이라며 한사코 자신을 밝히기를 꺼려했던 스님의 선행은 한 신도의 제보로 알려졌다.
"법장 스님의 '중생들의 모든 나쁜 것은 내 곁마에 담고, 내 곁마에 담긴 좋은 것은 나눠준다'는 말씀에 감화 받아 나눔을 실천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왔다"고 스님은 말했다.

일휴 스님은 이미 오래 전 전체장기기증을 서약했다. 장기기증 서약 이후 약속 지킬 날만 기다리던 스님은 참다못해 올해 3월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 계속된 조직검사에 몸은 지쳐도 좋은 인연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스님의 발원이 전해진 것일까. 신장을 기증받을 환자가 나타났다.

"내 법령 일휴(日休)는 날마다 쉬는 스님이 되라는 뜻이다. 쉬면 모든 것이 무(無)이고 그것은 곧 무소유를 뜻한다"라는 스님은 "상(相)을 내지 않고 마음(心)으로 돌아가면 세상이 편안할 것"이라고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랐다.
조종섭 기자

고품질 정수 발효식품 100% 천연
❖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꽃이 오르지 않고 향味的 익성을 섭취하는
❖ 산사 참울조청 1.2Kg - 현 시세
❖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들에게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농협 727077-02-056761(예금주-현우회)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전 화 1031)387-5400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1010-7504-4521 (강명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진 변호사)
경기도 안성시 동안구 광명동 1597 현명빌딩 206호(현충역 도보 5분)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6주기 추모법회 및 사리탑 제막식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6주기를 맞이하여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추모법회 및 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51(2007)년 12월 26일 (음 11. 17) 수요일

- 제1부 : 사리탑 제막식 (오전 9시 30분)
- 장 소 : 해인사 비림(부도전)
- 제2부 : 추 모 법 회 (오전 10시)
-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큰법당)
- 문 의 : 055)934-3000 (해인사 종무소), 055)932-7308 (원당암)

혜암대종사 문도대표 성법

